WWW.WEBHARD.CO.KR **ID** fimseoul **PW** fimseoul1
문의 김해민 haemin@galleryfim.com

Hyper Fiction	
참여 작가	윤경원(Kyungwon Yoon), 이의성 (Uesung Lee)
전시 기간	2025 년 6 월 19 일 – 2025 년 7 월 2 6 일 (오프닝 리셉션 : 6 월 19 일)
장소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개관 시간	화–토 11:00 – 18:00 (일, 월 휴관)
주최, 주관	핌(FIM)

전시 내용

핌은 2025 년 6 월 19 일부터 7 월 26 일까지 윤경원(b.1999)과 이의성(b.1982)의 이인전 «Hyper Fiction»을 선보인다. 회화와 조각을 다루는 윤경원과 이의성은 구별되는 매체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공간이나 화면을 통해 유희적인 속이기와 그것의 미학적 효과를 실험하는 일관된 예술적 태도를 보여준다. 전시는 재현을 통해 작동하는 미술의 고유하고도 매력적인 기법인 속임수와 픽션의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알레고리적 효과를 비추어 보기 위한 시도가 된다.

전시 서문

그것은 이제 적극적인 에이전트로, (…)
무한한 시나리오로 기능하며, 다양한 층위의 자율성과 물질성을 갖춘 하나의 틀이 되고,
그 형식은 하나의 아이디어와 조각 및 캔버스 사이에서 진동한다.[1]

핌은 2025 년 6 월 19 일부터 7 월 26 일까지 윤경원과 이의성의 이인전 «Hyper Fiction»을 선보인다. 전시는 재현을 통해 작동하는 미술의 고유하고도 매력적인 기법인 속임수와 픽션의 기능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동시대의 알레고리적 효과를 비추어 보기 위한 시도가 된다. 회화와 조각을 다루는 윤경원과 이의성은 구별되는 매체와 주제에도 불구하고 허구적 공간이나 화면을 통해 유희적인 속이기와 그것의 미학적 효과를 실험하는 일관된 예술적 태도를 보여준다. 이들의 작업은 미술이 여전히 재현의 방식으로 어떤 은유나 은밀함, 그리고 몰입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허구와 속임수의 방식을 통해

[1] 니콜라 부리오, 『포스트프로덕션: 시나리오로서의 문화, 예술은 세상을 어떻게 재프로그램 하는가』, 정연심, 손부경 옮김 (서울 : 그레파이트온핑크, 2016) 28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info@galleryfim.com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www.galleryfim.com

그 바깥에 존재하는 진실에 관해 묻게 하는 이러한 미술의 작동은 마치 거짓말이 어떤 믿음의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진실의 약속을 배반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진실의 약속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연상시킨다. 우리는 거짓말에 관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미술의 속임수를 참과 거짓, 현실과 재현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만 '무해한 허구(fiction)' 혹은 '의도적 행위(intentional act)'로 볼 수 있게 되며, 비로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미술의 허구나 속임수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2]

둘의 작품에서 시각적으로 떠오르는 형상은 단일한 의미를 지시하지 않으며, 이미지는 조작된 상황이나 상상된 픽션의 형식 구조를 탐색하게 하는 안내자로서 제시된다. 작품에 대한 메타적 태도는 두 작가가 미술에서의 모방과 재현이라는 행위가 낳는 허구와 속임수의 효과를 형식적,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이의성은 조각뿐만 아니라 작품이 공간적 환경과 맺는 관계, 그리고 미술과 시장 관계를 다루며, 윤경원은 나무로 조각하거나 분열해 확장되는 캔버스의 형태를 통해 이미지와 프레임 구조의 유동적인 역학 관계를 탐색한다. 이와 같이 두 작가는 작품의 물리적 조건을 구성하는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작품에 접근하는 (해석의) 행위가 새로이 만들어내는 작품 구조의 성립을 실험한다.

이의성은 정교한 재현성을 띠 조각을 통해 '에너지(노동)'와 '시간'이 관계 맺는 물리적 현상을 주된 주제로 삼아왔다. 이는 특히 구조적 세계와 작가로서의 개인적 삶을 가로지르는 사물을 통해 그 두 세계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탈락이나 은폐를 가시화하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는 입자나 움직임을 표면화하려는 시도였다. 작가가 흑연, 천과 실, 석고와 같은 직접적인 물질 재료를 사용해 작품의 제작(노동) 과정과 완성된 결과물, 즉 작품 간의 인과적이면서도 비등가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려고 한 것에 비해 그의 최근 작업은 '냉동 참치의 유통 과정'(‹Long Trip›, 2023)과 같이 구체적인 소재나 가상적인 상황의 대입을 통해 외려 그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숨겨진 진실에 주목하게 만드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의성의 작업은 이제 하나의 상상된 세계, 부분적인 시나리오로 제시되며 이는 이전까지의 작품 세계를 구성해 온 미술의 노동과 환경적 요소, 미적 수행과 작품의 교환가치 같은 개념들을 은밀하게 비추어 낼 뿐이다. 이처럼 작가의 작업에 등장하는 사물은 상징처럼 숨겨진 의미와 절대적으로 대응한다기보다, 오히려 그것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의 논리를 암시하는 하나의 시적 장치로서 제시된다. 또한 작가의 작업이 내적 내러티브를 갖춘 소재를 통해 은유화되는 이런 경향은 완결된 오브제와 개념미술 형식의 직접성을 확장해 하나의 픽션 구조나 경험의 매체로서 전환하려는 시도를 가리킨다. 전시에서 일종의 우화적 장면처럼 제시된 ‹Long Way›(2025)에서 정교하게 제작된 청설모와 포도송이 조각은 지연되고 유리된 시간성에 갇힌 특수한 가상적 상황을 통해 목표-노동-보상의 메커니즘을 은유한다. 이는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구성하는 일상적 노동을 둘러싼 개념들, 노동량이나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노동의 가치, 보상이나 성과에 대한 아이러니를 건드린다. 특히 작품의 치밀한 유사성은 재현이 가진 유희적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작가의 장인적 면모를 드러내며, 멈춘 것 같은 시공간의 연출은 전시 공간과 환경의 물리적 요소에 대한 관심을 확인케 하는 지점이다. 작가에게 있어 일정한 소리와 움직임, 질량과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물 전체는 모두 보이지 않는 물리적 논리로 구성된 하나의 구성적 객체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의 구조를

[2] '(…) 거짓말은 어떤 사실이나 상태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의도적인 행위(intentional act), 즉 '거짓말하기'(lying)입니다. 정해진 거짓말(the lie)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기'라고 부르는 발언, 그 말하기를 원하는 바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거짓말인가'라고 묻기보다는 '거짓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거짓말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자크 데리다, 『거짓말의 역사』, 배지선 옮김(서울: 이숲, 2019), 26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info@galleryfim.com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www.galleryfim.com

은유해 내는 것들이다. 이의성의 작품이 지닌 몰입적 효과는 전시장을 나서고 그것이 깨질 때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림에 집중하기 위해 그 위에 직사각형의 프레임 형식이 놓이듯이, 시스템은 삶 위에 놓인다.'[3]
거짓말, 허구는 그것의 발현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외부에 있는 진실의 존재를 일깨운다. 거짓은 그 기호적 의미의 바깥에 진실의 영역을 구축해 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상상력의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증법적인 거짓말의 작동은 예술의 오래된 표현 양식인 알레고리의 효과를 참조한다. 벤야민이 재정의했듯이 언어적 총체로부터 떨어져나온 하나의 파편으로서 존재하는 알레고리는 상징과 구분되게도, 오직 스스로 기표적 의미의 죽음을 거쳐 새로운 유사성이나 연결을 획득한다. 이는 회화라는 매체를 통해 파편적 요소의 배열 간 의미의 연관을 읽어내는 알레고리적 효과를 실험하는 윤경원의 작업과 맞닿아 있다. 작가는 수수께끼 같은 이미지의 조합이나 계속해서 부분으로 탈락하고 결합하면서 확장되는 회화적 프레임을 통해 그 자체로서는 텅 빈, 부유하는 의미의 가변성을 이야기한다. 작가가 도감이나 일상의 자연 풍경으로부터 견본을 수집한 뒤, 나무 조각과 캔버스의 조작을 통해 새로이 구성하는 이미지의 조합은 친숙과 위화의 경계를 오가는 신비로운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작가의 주체적 조작에 기반한 임의적이고 유동적인 제작 방식은 역설적으로 작품 해석의 권한을 개방적으로 관중에 위임하는 태도로 연결된다. 작가는 전시 방식을 작품의 일부로 포함함으로써, 캔버스를 하나의 완전체(entity)로 설정하기보다 작가의 고유한 제작 방식이 지닌 해체성에 따라, 공간의 여백이나 다양한 물질성을 띤 기하학적 캔버스들과 상호작용하며 무한히 쪼개지고 확장되는 파편으로서 제시한다. 작가의 작품은 이처럼 형식 간의 대립과 조응이 난무하고 그 틈을 비집고 부양하는 이미지의 잠재력을 방출시키는 장소로서, 그리고 작품이 허구적 장치를 스스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그 바깥에서 의미를 불러오게 만드는 형식의 메타픽션으로서 기능한다.

글 | 김해민(FIM)

작가 소개

윤경원은 나무를 먼저 조각해 그 과정의 우연성과 물질성을 형태로 포함하거나, 해체적인 프레임을 통해 캔버스의 입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험한다. 작가의 회화-조각이 지닌 혼성성은 이미지의 의도적인 변형과 색채의 우연적인 결합의 기틀이 되며, 합성으로 인해 흐릿해지는 화면 위의 형상만큼이나 그의 매체 또한 애매한 역할을 자처한다. 작가는 열린 구조상에 존재함으로써 획득되는 이미지의 다의성을 활용하며, 더 나아가 원래의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형태가 유희적 시공간에서 다시 배치될 때의 조형적 효과를 다룬다.

[3] 루시 R. 리파드, 『6 년: 1966 년부터 1972 년까지 오브제 작품의 비물질화』, 윤형민 옮김(서울: 현실문화연구, 2023), 24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윤경원(b.1999)은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개인전 «Synthesis»(Bio Gallery, 서울, 2025)과 단체전 «CHUNMAN ART for YOUNG»(노들갤러리, 서울, 2025), «TORQUE 5/DRS»(CYLINDER, 서울, 2025), «바늘로 두드린 바늘»(우석갤러리, 서울, 2024) 등에 참여했다. 2025 천만아트포영,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장상 등을 수상했다.

이의성의 작업은 예술 노동에 투입되는 실질적인 시간과 물질, 그리고 결과물로서 지니는 작품 가치로 환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미적 세계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게끔 한다. 이는 개별의 작품에서 나아가 전시의 공간, 그리고 노동과 미술을 둘러싸고 있는 비가시적 세계의 요소들 즉, 시간, 온도, 소리, 움직임 등을 물질화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이는 곧 미술과 사회, 그것 사이에 놓인 삶을 구성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작가가 정교한 유사성으로 제작해 낸 조각은 전시장에서 하나의 내적 작동 원리를 지니는 감각적 픽션으로서 제시된다.

이의성(b.1982)은 인하대학교에서 미술교육학과를 전공하고 영국 글래스고 예술학교에서 순수예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개인전으로 «롱 트립»(챔터투, 서울, 2023), «온도° 경»(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서울, 2019), «드로잉 실험실»(인사미술공간, 서울, 2017)가 있으며, 참가한 단체전으로 «경계의 풍경»(위상공간, 서울, 2022), «The Flexible Boundaries»(갤러리바톤, 서울, 2022), «털 날리는 계절»(show and tell, 서울, 2021), «예술과 에너지»(전북도립미술관, 2020), «AXIS 2020»(021gallery, 대구, 2020), «송은미술대상전»(송은아트스페이스, 서울, 2018), «Griffin Art Prize 2016»(Griffin Gallery, London, 2016) 등이 있다. 작가의 작품은 송은문화재단에 소장되어있다.

공간 소개

작품으로의 완전한 몰입 상태, 'Free Immersion'을 의미하는 FIM 은 국내외의 역량 있는 젊은 미술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예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우리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실험적인 시도와 성장을 함께하며, 해외 갤러리 및 큐레이터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높은 수준의 전시를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연구할 것이다.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전경 및 대표작 이미지

전시 전경, «Hyper Fiction», 2025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전시 전경, «Hyper Fiction», 2025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전시 전경, «Hyper Fiction», 2025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전시 전경, «Hyper Fiction», 2025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전시 전경, «Hyper Fiction», 2025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이의성, Tropical Time Keeper - Banana, 2025, Musical time-keeper_ K0461672, jesmonite, 42 x 35 x 15 cm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

윤경원, Flying, 2025, Oil on wood, 92 x 54.5 cm

사진 최철림, 이미지제공 **FIM**

FIM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1 2 층
2F, 11 UN village-gil, Yongsan-gu, Seoul
T. +82 2 790 1040
info@galleryfim.com
www.galleryfim.com